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 발... 양 단체장 합의

이용섭·김영록 합의문 서명
연구용역 1년, 검토 6개월 후
공론화위 구성해 진행하기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식'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이견을 보였던 시·도 통합 논의의 쟁점 사항에 합의함에 따라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전남지사는 2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6개 항목으로 시·도 통합 논의의 원칙과 로드맵이 담겨 있다.

통합 논의는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이 이견으로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통합 추진시기와 청사 소재지도 명확히 했다.

통합 추진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고 1단계 광주·전남 공동 싱크

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한 공동 연구용역을 1년간 시행하고, 2단계 6개월간 검토·준비 기간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은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해하고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통합청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 시정

과도청은 통합이후에도 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장애가 되지는 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또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상

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합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지역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시장과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정치,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통합 논의는 광주주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논의 과정은 양 시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전남=양수영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경북교육청 중등교사 인사고충해소

경북교육청은 2~13일까지 인사고충해소와 인사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1:1 비대면 인사상담을 한다.

비대면 인사상담은 교사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 교사들의 인사관련 의견을 수렴해 2021년 인사제도에 반영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보와 승진이다. 인사상담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업무담당자가 상담자의 희망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답변을 보내는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하며, 상담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고, 신청자가 요청할 시에는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경북=문봉현 기자

안동시 산불조심기간 예방활동 강화

안동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기간에 본청과 각 읍면동에서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4명, 산불감시원 167명을 활용해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홍보물 게첨, 차량·마을용 방송기기와 주요 입산로 무인자동방송기기를 통한 산불예방 계도방송 송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 등 다양한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순창 강천산 아기단풍 이번주 절정
순창군 강천산의 단풍이 이번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순창군에 따르면 아기단풍으로 유명한 강천산의 단풍이 이번 주 주말인 7-8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수폭과 병풍폭 등 강천산 명소들과 조화돼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전북=강성대 기자

경북 '따뜻한 교육' 실현 태풍피해가구 학비 지원

경북교육청, 내일까지 2차 접수
1차면 수업료 등 1500만원 지원

경북교육청은 지난 1차 태풍피해가구 학비지원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2차 학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오는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태풍 피해가구 학비지원은 올해 발생한 3개의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학부

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북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비지원 제도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1차 태풍 피해가구 학비지원으로 고등학교 1학년 34명에게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피해를 입고도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2차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따뜻한 경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나주시, 위기가구 생계지원 신청기준 완화하고 기간 연장

나주시가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을 오는 6일까지 연장했다.

나주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변경에 따라 당초 지난 10월 30일로 예정됐던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오는 6일까지 연장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사이트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북=강성대 기자

정읍시장, 내년도 예산 확보위해 '분주'

유 시장 국회찾아 예산 적극 요청

유진섭 정읍시장(사진)이 지역발전 성장 동력에 발판이 될 2021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국회를 찾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임오경 국회의원(문체위)을 만나 면담했다.

유 시장은 면담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반영을 위한 총력 대응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원욱 과방위원장에게 상임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과방위소관 사업인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반 구축(10억)사업과 백신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10억)사업을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 임오경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정읍 디지털미디어 아트센터 조성



(5억) 등 정읍시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임오경 의원은 고향이 정읍인 만큼 지역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유 시장은 내년도 국가 예산 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국회 단계에서 정읍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물론 증액과 추가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중앙부처 향우인사 등과 연계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

부산시민의 서재... '부산도서관' 개관

부산의 대표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4일 오후 개관식을 갖고 오후 4시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부산도서관은 일반도서, 아동도서 등 11만1969권의 도서와 전자책, 오디오북 등 7589종의 비도서 자료를 비치해 대출·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학술DB, 음악·영화·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등 23개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위치는 사상구 덕

포동 지하철역 2번 출구 인근이다.

부산도서관은 4개의 자료실과 11개의 특화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으며 개방적 구조로 인근 주거지역과 소통하는 공공보행로를 확보해 주변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한 외부공간으로 구성됐다. 도서관은 화~일요일에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부산=허원 기자 bsmorning@



너릿재 옛길 가을 풍경.

'건고 싶은 전남 숲길'에 화순 너릿재 옛길 선정

화순군은 너릿재 옛길이 최근 '건고 싶은 전남 숲길 공모'에서 전남도 대표 숲길 12곳 중 한 곳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너릿재 옛길은 '가을 대표 숲길'로 꼽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가 주관한 '건고 싶은 전남 숲길 공모'는 국민이 숲길을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을 선정하는 경연으로 계절별로 3개의 숲길, 총 12개 숲길을 선정했다.

너릿재 옛길은 광주와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구절초 단지 조성돼 있고 숲길 주변에는 울긋불긋 예기단풍이 주변 숲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가을 대표 숲길로 유명하다. /전남=강성대 기자

전남, '친환경농산물 부적격 농가' 퇴출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부정인증으로 처분받은 농가의 친환경농업 사업 참여를 제한한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라남도가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취소 면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5년간 배제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